

(2) 종교청년단체

순천에서는 1910년대에 이미 기독교 계통의 청년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순천기독면려청년회가 바로 그것이다. 기독교 계통의 청년단체는 한말부터 조직되었는데, 감리교 계통의 엽윗청년회, 장로교 계통의 면려청년회, 국제YMCA 지부로서 교파를 초월하여 조직된 기독교청년회 등이 교회별·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었다.¹⁾ 순천의 경우, 남장로파에 속하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 1920년대 후반에는 교회 2개소에 신도가 1,000명에 육박하였다.²⁾

순천기독면려청년회는 장로파 교회에 속하는 청년들의 신앙결사로서 1918년 10월 15일에 결성되었다. 1910년대 다른 지역의 종교 청년단체와 마찬가지로, 순천기독면려청년회는 회원의 신앙을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대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천기독면려청년회는 집단화한 세력이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 힘은 1919년 3·1운동에서 발휘되었다. 서울과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의 기독교계 청년들도 떨쳐 일어났다. 1919년 3월 16일, 기독교계 청년 수백 명이 순천읍에서 만세 시위를 시도하다가 5명이 검속되었다. 이로써 일제의 주시를 받게 된 기독교계는 운신에 제약을 받아서인지 한동안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하였다.

1920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순천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민활해졌다. 1920년 6월 이래 기독교계 인사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 결과 1921년 3월 사립순천매산학교와 사립순천매산여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무렵부터 순천기독면려청년회(이하 면려청년회로 약칭)도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921년 4월 21일 면려청년회의 제4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회장 이기풍의 사회로 회무 경과보고, 임원 선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면려청년회는 “남선(南鮮) 일대 사계(斯界)의 조종(祖宗)이 될 만한 연력(年歷)으로서 지방사회의 정신적 중견”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회활동의 토대가 될 각종 시설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³⁾ 1922년 봄 성정수가 회관건축비로 300원, 박승봉이 도서비로 400원을 기부함으로써 면려청년회는 독자적인 회관을 건립할 토대를 갖게 되었다. 1922년 7월 24일 순천읍 예배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일부 규칙을 개정하여 조직을 가다듬었다. 1920년대 초반 면려청년회는 회장·부회장 아래 지육부·덕육부·체육부·사교부 등의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간부진은 다음 표와 같다.

이들 가운데 김양수·이창수·정달조·한태선은 순천청년회의 간부로도 활동했다. 이기풍은 목사, 은이갑(殷二甲)·최남립(崔南立)은 순천매산학교 교사였다. 최남립은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승일학교 교사로 재직 중 광주노동공제회·광주청년회 간부로 활동했으며, 매산학교가 설립되자 전근와서 1923년경까지 근무했다. 은이갑은 1922년 초 교사직을 사임하고 동경신학교에 진학했으나 1925년 초에 돌연히 사망했다. 오영식(吳永植)은 정미업자로서 1928년경에는 사립순천유치원장을 지냈다. 김동섭(金東燮)은 1924년 순천면농민대회·순천농민회연합회 간부로

1) 기독교계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범우사, 1994 참조.

2) 染川覺太郎, 『全羅南道事情誌』下, 全羅南道事情誌刊行會, 1930, 61쪽.

3) 『동아일보』 1922.4.5.

순천기독면려청년회의 간부진

시 기	부서별 간부
1921. 4. 21. 정기총회	회장 김양수, 부회장 김주봉, 총무 이창수, 덕육부장 최정의, 지육부장 최남립, 체육부장 은이갑, 서기 최영기, 회계 김성일, 전 회장 김기례
1922. 7. 24. 정기총회	회장 이창수, 부회장·총무 이용철, 덕육부장 선재련, 지육부장 최정순, 사교부장 김영필, 서기 김성일, 부서기 최영기, 회계 오영식, 부회계 오두만, 평의원 이정권·한태선·정달조·김동섭
1923. 10. 13. 창립 5주년 기념총회	회장 이용철 기타 주요 활동가 김동섭·박태화·오영식·오한길 등

출전 : 『통이일보』 1921. 5. 11 · 1922. 8. 8 · 1923. 10. 19.

활동 중 ‘절초동맹사건’으로 검거되어 1925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다. 김성일(金聖日)·오한길(吳漢吉)은 1920년대 후반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로 활동했다.

감리교단의 청년들은 신창의법청년회(新倉憲法靑年會 : 엽윗청년회)로 결집되었다. 신창의법청년회는 1920년 7월 14일 이용식(李用植) 외 40여 명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신창감리교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이윤영(李允榮), 부회장 이용식(李用植), 종교부장 박인관(朴仁寬), 문학부장 박인수(朴寅洙), 사교부장 박종수(朴宗洙), 운동부장 전관두(田官斗) 등이 선출되었다.

한편, 순천 불교계의 청년신자들도 청년단체를 결성했다. 조선불교청년회 순천송광지회, 선암사 불교청년회 등이 그것이다. 1921년 8월 19일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조선불교청년회 순천송광지회의 제2회 정기총회는 당시 회장 김해은(金海隱)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당일 선출된 각 부별 총간사·상무간사는 서무부 김해은·이완준(李完俊), 지육부 임기산(林綺山)·성기현(成基賢), 이재부 박종기(朴種基)·양규선(梁圭善), 체육부 이순홍(李淳洪)·이종선(李宗仙) 등이었다.

이외에도 1920년대 초 순천지역에는 순천청년구락부, 청안(淸安)청년구락부, 순천유학생대회, 순천고학생상조회, 순천학우회, 순천운동구락부 등의 청년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청안청년구락부는 1922년 7월에 창립되었는데 회장 오창규(吳昌圭), 간사 박창균(朴昌均)·오석영(吳錫永)·이대진(李大珍), 서기 홍성유(洪性裕) 등으로 간부진을 구성하였다. 당일 회원들은 체육 장려, 소인극(素人劇) 조직, 신문잡지 구독, 지방의 악습·폐풍의 개선에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1920년대 초 순천유학생대회의 중심 활동가는 김종두(金鍾斗)·박성두(朴性斗)·박영진·서정기(徐廷基)·옥선진(玉璿珍)·윤행중(尹行重)·정문기(鄭文基) 등이었으며, 강연회·토론회 개최에 주력하였다.